

사설

‘다툼’ 접고 화합의 장 열자

정화회의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상대로 낸 자격상실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16일 조계종으로서의 마음 좋은 날이었다. 결과는 정화회의의 패소로 나왔다. 정화회의는, 지난 99년 1월 구룡사에서 열린 원로회의에서 종회를 해산했다며, 이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룡사 원로회의의 결의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2년 동안의 법정 다툼이 마침내 마무리되었다. 정화회의에서 상고하더라도 상고심은 법률 심이므로 번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제 조계종단의 문제를 사회법적 판단에 맡기는 일은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인천(天)의 사표로 추앙받고 있는 스님들이 종단 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에 잘못을 가려달라는 것은 불교의 권위를 스스로 팽개치는 일이다. 종단 내부에 법과 규칙이 있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없는 것도 아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 보니 격양될 수도 있겠지만, 세속인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 불자들이 국민들의 바람이다.

이제라도 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결정한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징계를 받은 스님들도 여전히 조계종의 스님들이다. 멸빈의 징계를 당했다 하더라도 사찰에 머물며 부처님을 사모하는 스님들이 많다. 신도들로부터는 여전히 귀의처가 되고 있다. 물론 지난 98-99년 사태를 일으킨데 대한 참회가 먼저 있어야 한다. 사태의 중심에 있던 당사자들이 할 말이 많겠지만, 당시 폭력이 난무하는 사태를 보며 많은 불자들은 어린 자녀들과 가까운 이웃들의 “스님들이 왜 싸우느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없었던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신도들뿐이었던가.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던 스님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재판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에 새로운 계기를 주고 있다. 화합을 가장 큰 덕목으로 여기는 승가의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다. 마침 98-99년은 물론 99년 종단 개혁 때 징계를 당했던 스님들에 대한 사면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더 이상의 법정 다툼은 견어버리고 화합의 한 마당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종교인 상식 저버린 ‘왜곡’

지난 12일 통일교단이 발행하는 종합일간지 <세계일보>에서는 ‘영계리포트’라는 제목으로 16쪽짜리 타블로이드판형 별채본을 신문과 함께 배달하였다. 그 속에 실린 불교 비방 내용은 종교인으로는 상식을 뛰어넘은 것이었다. 세계 인류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간의 복지와 안녕을 소망하는 종교 단체에서 어찌된 이렇게 물상식한 글을 만들어 유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인류의 미래가 막막하기만 하다.

‘영계리포트’에는 ‘부처님이 설교한 진리는 잘못된 것. 석가모니 부처님도 진리를 왜곡해서 영계에서 통곡하고 있다’고 부처님을 비하하면서 부처님이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을 잘못 인도하고 거짓말을 한 것처럼 혹독한 망설을 늘어놓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개개 완성은 있을 수 없다”고 하여 불자들이 마치 하나님의 종속된 것이며, 불교의 깨달음은 오직 하나님에 의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사회의 올바른 소식과 지식을 깨우쳐 주어야

할 신문이 이처럼 왜곡되고 치우친 망설을 발행하고 배포한다는 것은 반인륜적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불교 비방도 인용하기 민망할 정도로 심각하다. 최근 인터넷상에 불교비방을 목적으로 개설된 ‘인티블로그’는 일반인과 불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익명에 기대어 남을 비방하는 것은 종교인의 태도도 아니거니와 전자민주주의에도 크게 어긋나는 소행이다. 바른 가치관을 지닌 종교인이라면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자기 종교의 가르침을 더욱 내밀화하고 실천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종교간에 갈등과 반목만을 초래한다면 인류 평화에 이익될 것이 무엇 이겠는가? 정부도 종교간의 문제라 하여 강 건너 불구경하듯 팔짱을 끼고 있어서는 안된다. 심각한 사회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인만큼 근절책과 함께 처벌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종단에서도 엄중히 대처하여 불교도와 국민에 대해 종단에 대한 신뢰감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전·인천 전법燈 밝힌다

조계종 포교거점 지정 예산·행정지원 불교회관·포교당 열고 주민포교 나서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이 지역 불교 활성화와 위해 인천시와 대전시를 포교거점지역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예산 및 행정지원에 나선다. 포교거점지역으로 선정된 인천과 대전지역에는 1차로 각 6천만원과 포교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그동안 대도시지역에도 불교세가 상당히 미약한 불교 취약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인천과 대전지역, 전폭적인 지원과 예산투자로 불교 활성화의 불을 지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교원은 대전과 인천지역의 불교회관과 전법포교당이 지역포교네트워크 센터로

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신도교육과 조직, 포교방법의 전형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인천시암연합회(회장 현성)는 8일 인천불교회관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원광)를 구성하고 6월까지 불교회관건립 기공식을 갖기로 했다.

인천시청 앞에 213평 부지를 마련한 조계종 인천시암연은 3-7층 규모의 불교회관을 건립해, 지역사회 불교신도 교육을 위한 불교대학 설립 등의 방안을 마련중이다. 조계종 인천시암연 불교회관건립추진위는 16일 포교원을 방문하

고 지역불교활성화를 위한 거점지역 선정과 지역포교방안에 대한 논의했다. 불교회관추진위는 회관건립규모와 운영계획서를 26일까지 포교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전지역거점포교를 위해 포교원은 12월 22일 장곡스님(갑사 주지)을 대전포교도량 운영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제2정부청사가 있는 서구 둔산동에 전법포교당을 마련했다. 포교원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위원을 위촉한 뒤 2월경 개원법회를 개최한다.

대전 제 2정부청사 공무원불자회와 직장·직능불자 포교를 위해 마련된 전법포교당은 직장·직능단체의 법회공간과 대불전·대불청 등 각 실행단체의 사무실도 제공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opia.com)



지관·천운·동춘 스님 원로의원

조계종 원로회의의 선출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법전)는 17일 총무원4층 회의실에서 16차 회의를 열고 지관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과 천운스님(광주 향림사 주시), 동춘스님(전 봉암사 주지) 등 3명을 원로회의원으로 선출했다. 1월 말로 임기 만료되는 석주, 원담, 도견스님의 증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원로의원으로 선출된 세 스님은 지난 해 11월 열린 중앙종회에서 원로의원으로 추천됐다.

지관스님은 1947년 자운스님을 은사로 해인사에서 출가했으며, 해인사 주지와 중앙종회 부의장, 동국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천운스님은 47년 월정사에서 종속스님을 은사로 출가, 화엄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원, 대흥사 주지를 역임했다.

동춘스님은 56년 석암스님을 은사로 선암사에서 출가, 평생 참선수행에 매진해오고 있다. 조계종립 특별선원인 봉암사 주지를 역임했다.

정성운 기자

“명칭·자율 보장하면 통합 찬성”

전신회 선진규회장

“(사)전신도회 명칭사용과 신도회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될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중앙신도회와 통합할 수 있다”

전신도회 선진규회장은 16일 교계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신도회와 중앙신도회로 분리돼 있는 신도회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원칙임을 분명히 했다.

전신도회는 올해 신신도 일 상용 계승권 제작 및 보급 △영 불선 수행방법 도입 및 전국영불결사운동 전개 △통일토론회 개최 △인터넷홈페이지 개편 △시민단체와 연대활동 강화 △불교지도자양성강좌 개설 △청소년지도자 교육장 설립 등의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서울신도회 5계 실천

조계종 서울신도회(회장 정인악)는 16일 교계기자 간담회를 갖고 5계 실천운동 전개를 골자로 한 2001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신도회는 5계 실천운동의 사회적 의의와 방향성 제시를 위한 서울지역 연합신도연수회를 3월 17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3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4차례에 걸쳐 서울을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눠 구별 신도연수교육을 실시해 5계 실천모임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도회는 올해 내 구별 기초신도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포교원(원장 정련) 신년례법회가 150여명의 포교신도단체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계동산 감사유스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교부장 상운스님은 “올해를 청년불교활성화의 해로 선포한다”며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청년불교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포교원은 청년불교활성화를 위해 △대학생불자 프로그램 연구 및 교육사업 △대불전 단체활동지원 △대불청 발전기금단 설립 △청년실업 및 종교의식 조사 △청년아카데미교육사업 실시 △스키구별 청년지도자육성 △청년포교지표조사 등의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비구·비구니계 분리

조계종 계단위 올부터 시행

조계종 계단위원회(위원장 범통)는 16일 동화사 비로암에서 20회 계단위원회를 열어 올부터 비구계와 비구니계를 분리해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 동안 구족계 수계를 비구, 비구니 합동으로 해왔으나, 올부터는 올장 정신에 입각해 비구계단은 불, 비구니계단은 가에 개설해 각각 병행하기로 결의했다. 정성운 기자

1면 ‘불교비방’서 이어짐

또 통일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세계일보가 12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회의 의뢰에 의해 불교와 부처님, 성철스님을 공개적으로 모독한 ‘영계(靈界)리포트’를 제작 배포했다. 16면에 걸쳐 실려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석가모니부처님과 성철스님의 사상과 행적을 왜곡해놓고 있다. 또 부처님과 성철스님이 통일교 고주 문선명의 통일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는 등 부처님과 성철스님을 모독하고 있다.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원회(위원장 안산)는 16일 세계일보 발행인에 게 보내는 공문을 통해 영계리포트 발행배경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회와 계약관계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원우기자

종립학교 위상 찾는 세미나 잇따라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학담)가 종립학교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세미나 토론회를 잇따라 연다.

종립학교관리위 산하 종립학교 발전을 위한 연구소(위원장 영담)는 15일 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 중앙승가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3월 6일), 동국대 불교대학 위상 정립을 위한 세미나(3월 20일), 동국대 일산병원 관련 세미나(4월 초)를 3-4

월중에 열기로 했다.

교육원과 공동 주최하는 중앙승가대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는 3월 6일 불교회관에서 열리며, 기조 발표(‘중앙승가대의 설립 역사와 의의’, 발표자 무비스님과 주제 발제, 지정토론)로 진행된다.

‘한국불교 발전과 동국대 불교학 연구의 현주소’를 주제로 한 세미나는 종립학교관리위 주최로 3월 20일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정성운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엽기가 따로 없네

2001년 대원불교대학 입학안내

왜! 대원불교대학인가?

최고의 불교학수업들이 펼치는 주옥같은 강의로 불교의 진수를 만나보십시오.

- 회복수**
동국대 불교대학 불교학과 졸업. 철학박사. 현재는 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 인터넷 불교대학 책임교수. 저서로 <원시불교 원전의 이해> <원시불교와 초기대승불교 사상> <근본불교의 가르침>의 다수.
- 강위욱**
부산대 사범대학 졸업. 동국대 불교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 일본 동경대 인도철학과 석·박사 졸업. 문학박사. 현재 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 저서로 <해동고승전연구> <불교학개론 강의실> <대승기신론 이야기>의 다수.
- 이강우**
동국대 불교학과, 인도 바라나시 힌두대 불교학 박사.
- 강사범**
동국대 불교학과 인도불교 전공. 일본 국립 경도대에서 인도철학 연구.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 조병교수**
월운 스님, 해거 스님, 권기종 교수, 정병조 교수.



● 불교전문 도서관 운영
총 1만 여권의 불교학술 및 교양도서는 교수님들의 명 강의와 더불어 폭넓은 불교공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넉넉한 교육환경
학년별 강의실과 큰법당, 충신실 등 넉넉한 교육 실행 공간에서 자유롭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 30여 년의 전통과 2,000여 동문 불교계 각계 각층에 포진한 대원불교대학 동문들과 만나 보십시오. 생생한 불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화·현대화·대중화 하기 위하여 불교지도자와 포교사를 양성하고자 설립된 2년제 야간전문 불교대학이다. 1972년 고 대원 장경호 거사님이 불교의 대중화를 위하여 대원정사를 설립하고 대승불교의 정신을 오늘에 구현하고자 「自我를 발견하고 地上에樂園을 이룩하자」는 설립이념 아래
- 1972년 대원불교강원(2년제)을 개설하여 원전강독을 시작하였다.
- 1974년 대원불교양과대학으로 개칭하여 법사과와 통신과를 신설하다.
- 1982년 대원불교대학으로 개명하고 지금까지 2,000여 명의 지도자를 배출하여 출가, 재가 사회 각급 지도층에 이르기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불교대중화운동의 기수로서 활약하고 있다.
- 1997년 미국지역에 대원불교대학 분교(워싱턴, LA)를 설치하여 국제포교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원불교대학은 불교의 지식만을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의식수련 등을 통하여 대중 속에서 존경받는 불교지도자를 양성하는 철차탁마(切磋琢磨)의 전당이다.
- 2000년 대원도서관 개관.

2001년 대원불교대학 신입입생 모집 안내

강의시간 3월 1일 개강, 주 3일(화, 수, 목) 출석, 야간 수업

교육과목

1학년	1학기(16주)	· 불교학 개론 · 인도불교사 · 불교경전개설 · 불교문화특강
	2학기(12주)	· 원시불교 · 아비달마(구사론) · 빈아사상 · 불교의식 실습
2학년	1학기(18주)	· 유식사상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우리말 불교의식
	2학기(12주)	· 법학사상 · 화엄사상 · 정토사상 · 신사상

모집 및 전형 (2년제 야간·출강·통신과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서류전형 · 합격자
· 불교학 통신 00명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 보유자	· (사진 3매) · 불교대학 졸업장 사본 (원입생에 한함)	· 합격통지 · 편입학은 2학년 과정으로 입학
· 불교학 편입 00명	· 타 불교대학 과정 졸업자		

원서교부 및 접수 2001년 2월 17일까지(본 대학 교무과)

특전사항

-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망자 법처 제공 · 포교당 증교법인 보호
- 지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大圓佛敎大學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773-9171, 776-7156, 754-1613
FAX : (02)756-7258